

광양시, 어르신 디지털 소외 '동년배 해결사'가 뜬다

‘시니어 디지털 안내사’ 5곳 배치
키오스크·병원·기차 예약 등 안내
어르신 정서적 고립감 치유 기대
‘5분 디지털 도움권’ 전역 확장도

광양시가 가속화되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지역 어르신들과 손잡고 일상 속 사시 지원 체계 구축에 나선다.

4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달 24일 나흘간의 강도 높은 역량 강화 훈련을 마친 10명의 시니어 디지털 안내사들이 시청 민원실과 옥곡·진월면 사무소, 골약·광영동사무소 등 5개 핵심 거점에 전진 배치돼 본격적인 임무에 돌입했다.

이들은 키오스크 앞이나 스마트폰 화면에서 찢깍대는 동년배 어르신들을 위해 병원 진료 예

약부터 기차표 예매, 유튜브 음악 감상, 메신저로 손주에게 사진 보내기 등 일상과 직결된 생존형 디지털 활용법을 밀착 안내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의 가장 빛나는 성과는 타지에 사는 자녀들에게 거둬 묻기 미안해 홀로 속앓이를 하던 어르신들의 심리적 장벽을 단숨에 허물었다는 점이다.

전문 강사의 일방적인 지식 전달이 아니라, 같은 시대를 살아온 동년배 조력자가 ‘눈높이 소통’으로 다가서다 보니, 열변을 다시 물어도 부담 없는 편안한 사랑방이 자연스럽게 조성됐다.

이는 단순한 기술 전수를 넘어, 단절된 어르신들의 정서적 고립감까지 치유하는 든든한 사회적 백신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여기에 광양시니어클럽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노인 일자리 사업과 정교하게 연계한 점도 돋보인다.



광양시가 올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일상 속 어르신 디지털 격차 해소 밀착 지원 정책에 나선다. 사진은 시니어 디지털 안내사들. <광양시 제공>

시가 정책 총괄과 안내사 양질의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에는 거미줄처럼 촘촘한 디지털 안전망을 덧씌우는 완벽한 선순환 생태

계를 구축했다. 광양시는 이번 5개소 시범 운영의 현장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해 도심과 농촌 어디서든 걸어서 5분 이내에 동년배 조력자를 만날 수 있는 이른바 ‘5분 디지털 도움권’을 전역으로 확장할 방침이다.

또한 첨단 기술의 편리함을 모든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도 공격적으로 병행한다.

광양시 관계자는 “디지털 안내사는 차가운 기계 화면 앞에서 막막해하는 어르신들에게 바쁜 자녀를 대신해 가까이 곁을 내어주는 가장 따뜻하고 든든한 동반자”라며 “빛의 속도로 발전하는 첨단 기술이 우리 부모님 세대에겐 거대한 절망의 벽이 되지 않도록, 사람의 체온이 짙게 밴 현장 밀착형 아날로그 소통망을 무기 삼아 지역의 디지털 격차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양홍렬 기자

여수 금오도·남도 ‘체류형 명품 섬’ 날갯짓

한국관광공사와 관광콘텐츠 실증

위케이션·요트·로컬팍파티 등 운영

여수 금오도와 남도가 민간 벤처기업의 아이디어를 입고, 스쳐 가는 관광지에서 ‘머칠 낚시 머무는 명품 휴양지’로 탈바꿈 한다.

4일 여수시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섬·기업 상생관광 프로젝트’에 금오도·남도 2개 섬이 최종 선정됨에 따라, 지난달 한국관광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체류형 섬 관광 콘텐츠 실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공모사업은 체류형 관광콘텐츠를 개발·실증 사업으로 섬별 여행사·관광벤처 등 2-3개 기업을 매칭해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운영하

며, 섬 관광의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상생 기반의 운영모형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금오도와 남도에서는 자연자원을 활용한 아웃도어 활동과 마을 기반 체험, 위케이션·요트 프로그램 등 체류형 관광을 중심으로 돌레갈·카약, 로컬 팍파티 등 다양한 체험과 소비가 연계되는 프로그램으로 방문객이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밖에 여수시는 한국관광공사와의 협의를 거쳐 기업 매칭을 확정하고 선정된 기업과 함께 프로그램을 고도화해 단계적으로 실증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섬박람회 기간에는 박람회 방문 수요가 섬 관광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금오

도·남도 연계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해, 방문객들이 박람회 관람과 함께 섬 현장에서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직접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선정은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여수 섬 관광을 체류형 콘텐츠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라며 “금오도와 남도가 가진 매력을 바탕으로 방문객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모사업에는 전국 대표 섬 8개소가 최종 선정됐으며 여수(금오도·남도)를 비롯해 화성(제부도·국화도), 보령(원산도), 통영(용호도·상도), 서귀포(가파도)가 포함됐다.

/여수=김진선 기자



장성군 초·중·고 17명으로 구성된 에코스쿨 동아리원들이 최근 말레이시아 우수 에코스쿨을 찾아 현지 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장성 학생들, 지구촌 기후 위기 해법 모색

초·중·고 17명 말레이시아 방문

지속 가능 먹거리 교육 등 체험

장성의 꼬마 환경 운동가들이 지구촌 기후 위기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말레이시아를 방문했다.

4일 장성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역 초·중·고 17명으로 구성된 에코스쿨 동아리원들은 지난 달 27-28일 3박5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현지 우수 에코스쿨 2곳을 공식 방문했다.

참여 학생들은 현지 중·고등학교인 ‘SMK ASSUNTA’를 방문해 열대 기후를 심분 활용한 수경재배 등 지속 가능한 먹거리 교육의 정수를 체험했으며, 공립초등학교인 ‘SK KUALA POMSON’에서는 학생과 마을 주민이 레몬그라스를 공동 재배하고 유통하는 생생한 지역 순환경제 모델을 눈에 담으며 환경 안목을 넓혔다.

앞서 장성군은 전체 25개교가 국제 에코스쿨 인증을 100% 달성하는 전국 최초의 기업을 토한 바 있다.

올해는 개교 인증을 유지하면서 학생들이 직접 나무를 심고 생태계를 복원하는 국제 숲배움터(LEAF) 인증까지 준비 중이다.

이밖에 장성군은 2023년부터 행정·교육지원청·지역 주민 협의체가 공동 협력체계를 강화해 에코스쿨 참여 학생을 발굴·육성하고 지역 특화형 환경인재 양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정선영 교육장은 “이번 말레이시아 횡단은 단순한 해외 견학을 넘어, 국경을 초월한 굳건한 환경 연대의 위대한 첫걸음”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좁은 교실을 뛰어넘어 전 지구적 기후 난제를 씩씩하게 풀어나가는 글로벌 녹색 리더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역협의체가 협력해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장흥소방, 농아인 43가구 ‘화재 안심망’ 구축

지자체·수어센터 협력...100% 만족

장흥소방이 화재 경보음을 듣지 못하는 농아인들을 위해 ‘빛’으로 위험을 알리는 맞춤형 안전망을 구축했다.

4일 장흥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달까지 4개월간 관내 농아인 43가구를 직접 찾아가 화재 발생 시 강렬한 빛을 뿜어내는 시각형 화재감지기를 설치했다.

이전 프로젝트는 장흥소방 예방안전과와 장흥군, 장흥군수어통역센터가 협력했다. 소방대원들은 감지기 설치는 물론, 119신고앱(42건)과 119안심콜 서비스(42명) 가입을 지원하고 주택 내 노후 전기 시설까지 꼼꼼하게 손봤다.

수해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한 41가구가 100% ‘만족’ 꼽았고, 전체 긍정 응답률이 무려 99%에 달하며 압도적인 호응을 이끌어냈다. /장흥=노형록 기자

무엇보다 고무적인 성과는 이 모든 혜택이 별도의 막대한 예산이나 신설 전담 조직 없이, 기존 공공 인프라의 행정 칸막이를 허문 유기적인 ‘협업’만으로 완성돼, 전국 어느 지자체든 즉시 도입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표준 이정표를 세웠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병은 소방서장은 “소리 없는 무자비한 화재 앞에서는 그 어떤 모던도 구조의 사각지대에 방치돼선 안 된다”며 “협업 모델이 전국 재난 취약계층의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방패막이로 굳건히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노형록 기자

화순군, ‘숨쉬는 도자기 교실’ 수강생 접수

오는 17일까지 선착순...총 20회 진행

화순군이 흙을 빚으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털어내고, 실생활에 유용한 전통 생활 기술까지 전수받는 일석이조의 힐링 배움터를 연다.

4일 화순군에 따르면 전날부터 오는 17일까지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숨쉬는 도자기 교육’을 마련하고,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이양면 소재 무량광도에공방에서 오는 31일부터 6월10일까지 총 20회(기수별 1회씩)에 걸쳐 알차게 진행된다.

수강생들은 다채로운 도자기 소품을 직접 디자인하고 기마에 구워내며, 이론과 실습을 넘나드는 입체적인 훈련을 받게 된다.

기수별 정원은 12명씩이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실습 재료비 일부 자부담)다.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군 농업기술센터 농



지난해 열린 숨쉬는 도자기 교육 현장 모습. <화순군 제공>

촌지원팀을 방문하거나 전화(061-379-5434)로 접수하면 된다.

최은순 화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선조들의 장인정신을 배우는 동시에 부가 소득 창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담양군, ‘고혈압·당뇨 바로 알기 교실’ 참여자 모집

담양군은 4일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고혈압·당뇨 바로 알기 교실’ 참여자 20명을 전날부터 모집 중이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고혈압, 당뇨병 환자와 고위험군 주민을 대상으로 합병증 예방과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과정은 기초 건강검사를 비롯해 만성질환 관리 교육, 구강관리, 영양교육과 신체활동, 스트레스 관리 등으로 구성되며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기초 건강검사에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당화혈색소 등을 측정한다. 프로그램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담양군 여성회관 1층 기억동행 쉼터에서 운영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담양군보건소를 방문 또는 전화(061-380-3965)로 신청하면 된다.

담양군 관계자는 “고혈압과 당뇨병은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질환”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주민들이 올바른 건강관리 방법을 익히고 일상에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지난해 진행된 ‘2025년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 모습. <고흥군 제공>

고흥군, 내일부터 ‘청렴 컨설팅’ 본격 운영

본청·16개 읍·면 대상 순회

고흥군이 공직 사회 내 올바른 청렴 행정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 밀착형 최신 작업에 나선다.

4일 고흥군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 본청 전 부서와 16개 읍·면 사무소를 직접 돌며 ‘2026년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을 진행한다.

지난 2년간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연속 3등급을 유지하며 기본기를 다진 군은 올해 1등급 탈환을 목표로 부패 취약 분야 개선과 즐거운 직장 문화 조성에 집중한다.

군은 순회 컨설팅을 통해 일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전남도의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를 적극 전파해 일선 공무원들의 위축된 적극 행정에 든든한 날개를 달아줄 예정이다.

공영민 군수는 “지금까지 다져온 청렴의 토대 위에서 이제는 한 치의 타협도 없는 최고 수준의 도덕성을 군정 전반에 완벽히 정착할 골든타임”이라며 “조직 전체가 톱니바퀴처럼 끈끈하게 맞물려 부패 제로(ZERO)의 청정 고흥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주성학 기자